

초기 청소년의 음주경험, 음주지식, 음주기대에 관한 연구

탁영란¹⁾ · 윤이화²⁾ · 안지연³⁾

서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음주 청소년 특성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청소년 2,990명 중 음주 경험을 보고한 대상자는 74.4%, 취해 본 경험이 있음을 보고한 대상자는 44.9%로, 한국 청소년의 음주 실태가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Jegal, Heo, Kim, & Lee, 2004). 청소년의 음주 행위는 점차적으로 음주 시작의 지연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흡연, 물질 남용, 폭력, 음주운전, 사고 등의 건강 위험 행위(health risk behavior)를 동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청소년 건강 증진 및 예방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Casbon, Lang, Curtin, & Patrick, 2003; Donovan, 2004; Park & Grant, 2005; Swahn & Hammig, 2000; Vinson, Borges, & Cherpitel, 2003; Warner & White, 2003; Windle, 2003).

청소년의 음주 행위 시작은 가족 요인, 또래 집단 요인, 개인 요인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다(Feldman, Harvey, Holowaty, & Shortt, 1999).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 구성 형태, 부모 및 형제의 영향, 양육 방식, 부모-자녀간 관계 등이 포함되고, 또래 집단 요인에는 음주 행위에 대한 또래 압력 및 또래의 음주 행위가 포함되며, 개인 요인은 술에 대한 가치, 신념, 기대 등이 포함된다(Donovan, 2004). 이 중 개인 요인으로서 음주에 대한 신념 및 기대는 청소년의 음주 행위 및 음주 관련

문제에 대한 중요한 예측 인자 혹은 조절 인자임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Kim & Yoon, 2001; Martino, Collins, Ellickson, Schell, & McCaffrey, 2006; Neighbors, O'Malley, Johnson, & Bachman, 1998). 특히 음주 기대는 음주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음주 경험 전에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되므로 주로 청소년기 이전에 형성된다(Wiers, Sergeant, & Gunning, 2000).

Smith와 Goldman(1991)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의하면, 음주에 대한 기대는 음주 행동을 야기하며, 청소년기의 음주 기대는 술에 관한 학습 과정(individual alcohol-related learning history)에 의해 결정되는 인지적 기억으로, 술에 관한 정보 및 행위에 대한 노출의 형태 및 기간에 따라 형성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음주의 경험에 의해 긍정적 음주 기대를 갖는 경우 음주의 지속을 초래하고, 음주 기대와 음주 문제 경험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Kim & Yoon, 2001). 특히 건강 습관 형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첫 음주 시도와 음주 기대간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첫 음주 시도 이후 강화된 음주 기대가 음주 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 요인(motivation)이 될 수 있다(Aas, Leigh, Anderssen, & Jakobsen, 1998).

Park과 Grand(2005)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 결과는 음주량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 좌우된다고 보았다. 음주는 동시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리적 완화를 위한 긍정적 기대로 음주를 시작하였으나 음주의 결과가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주요어 : 음주 경험, 음주 지식, 음주 기대, 초기 청소년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2) 질병관리본부 선임연구원

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투고일: 2006년 8월 18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1일

경험과 음주에 대한 지식이 환원하여 개인별 음주 기대가 형성된다.

청소년기의 음주 기대는 사회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대략 10세 전후로 사회적 규범과 매스미디어 및 광고의 영향 등으로 긍정적인 기대와 신념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기에 음주 행위를 선택할 위험률은 상승하게 된다(Cameron, Stritzke, & Durkin, 2003; Gillmore et al., 1998). 청소년기 음주 결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음주 경험 시작을 예방하고, 음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대의 정도와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실시해야 된다. 생애 전반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문제 선별 및 예방 프로그램은 건강 위험 행위가 시작되는 적정 시기에 제공되는 것이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Ellickson, Collins, Hambarsoomians, & McCaffrey, 2005; Warren, Kann, Small, Santelli, Collins, & Kolbe,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주 행위를 조기에 선별 또는 예방하고자 초기 청소년의 음주 기대와 음주 경험 실태를 확인하고, 음주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음주기대와 관련 요인간의 관계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발달특성 및 관련요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학년별 및 음주경험 유무별로 음주 기대 및 음주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일개 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자가 보고에 의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표집 과정은 설문지 배포 4주 전, 해당 지역 10개의 중학교의 학교장을 직접 찾아가 연구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교는 7개교였다.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의 협조 하에 각 학년에서 보건교사의 임의 추출로 2-3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각 담임교사의 동의를 구한 뒤 해당 학급의 보건수업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2,400여개의 설문지 중 총 1,959개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1.6%였다. 성별 및 학년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 7명과 음주 경험 문항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 98명이 제외된 총 1,854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

● 음주 경험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항목 중 음주 경험에 관한 두 문항,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몇 모금 맛보는 것 제외)와 술을 처음 마셨을 때 나이는(몇 모금 맛보는 것 제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YRBS는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 이환율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총 6개 영역(음주 및 약물 남용, 흡연, 폭력, 자살, 식이습관 및 신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Brener, Grunbaum, Kann, McManus, & Ross, 200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음주 경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음주관련 영역 2문항을 사용하여 음주 경험 유무와 음주 시작 연령을 측정하였다.

● 음주 지식

음주에 관한 지식은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NIAAA)에서 제공하는 2003년 Curriculum Supplement Series 중 Understanding Alcohol: Investigations into Biology and Behavior에서 제시한 내용 중 알코올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 정도로 그렇다/그렇지 않다는 정답 및 오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NIH, 2003) 본 연구에서는 정답률을 근거로 항목별 정답을 합산하여 총점율 지식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 지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65였다.

● 음주 기대

음주 기대는 술을 마셨을 때 기대되는 결과로서, 폭력이나 부주의와 같은 부정적 기대와 즐거움이나 긴장 해소와 같은 긍정적 기대로 대별될 수 있다. Alcohol effects Questionnaire(AEFQ)는 Brown, Goldman와 Inn(1980)의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를 수정하여 개발된 도구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아니오로 측정하였다. AEFQ 도구의 하부 영역은 긍정적 기대 및 부정적 기대 각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기대는 전반적인 긍정(Global positive, POS), 즐거움(Social and physical pleasure, SPP), 사회성(Social expressiveness, SOC), 그리고 긴장해소(Relaxation and tension reduction, REL)로 되어 있고, 부정적 기대는 공격성(Power and aggression, AGG), 인지 및 신체 장애(Cognitive and physical impairment, IMP), 부주의(Careless unconcern, CU), 그리고 성적 감흥(Sexual enhancement, SEX)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인 대상자의 발달적 특성을 감안하여 성적 감흥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예비 조사와 전문가

의 검토 하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를 제외하였다. AEFQ는 음주에 대한 사회심리적 결과기대를 통합하여 개발된 도구로 실제 미국의 음주 상담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서구 문화에 비해 관용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였고, 문화적 특이성이 반영된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에 의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총 35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음주기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3, 긍정적 기대 영역 0.90, 부정적 기대 영역 0.88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AS 9.01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음주 기대와 음주 지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음주 기대와 음주 지식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음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경험, 음주 지식, 학년, 성별을 예측 인자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은 36.6%(678명), 2학년은 31.2%(578명), 3학년은 32.3%(598명)이었으며, 남학생은 47.8%(886명), 여학생은 52.2%(968명)이었다.

음주 경험

<Table 1> Alcohol use behavior

Category	Frequency(N)	Percent (%)	
Have you ever had a drink of alcohol, other than a few sips?(N=1,854)	No	1204	65.0
	Yes	650	35.0
I have never had a drinking of alcohol other than a few sips	≤ 8	984	53.1
	9	40	2.2
	10	16	0.9
	11	19	1.0
	12	27	1.5
	13	57	3.1
	13	123	6.6
	≥ 14	285	15.4

<Table 1>과 같이, 전체 대상자 중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느냐?(몇 모금 맛보는 것 제외)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5%(650명)로 본 연구 대상자인 중학생 3명 중 1명이 과거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에서 음주 무경험자의 수(1,204명)와 음주 시작 연령 문항에서의 음주 무경험자의 수(984명)가 다른 이유는 두 문항에서의 모순된 응답을 한 대상자는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주 경험 여부에서 '음주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고 음주 시작 연령에서는 '음주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와 반대로 음주 경험 여부에서 '음주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고, 음주 시작 연령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두 문항에서 모두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음주 시작 연령에서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 즉, 실제 나이는 10 세이지만 음주 시작 연령을 11세라고 응답한 경우는 음주 시작 연령 문항을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음주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2>, 남학생(33.07%)과 여학생(36.8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별로는 3학년(44.31%)이 가장 높은 음주 경험률을 보이고, 통계적으로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2.30, p=.000$). 술을 처음 마셨을 때 나이는?(몇 모금 맛보는 것 제외)에 대한 항목에서 최초 음주 시기가 14세 또는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5.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13세로 6.6%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2> Drinking experience by gender and grade

		No	Yes	χ^2	p
		n(%)	n(%)		
Gender	Male	593(66.93)	293(33.07)	2.9497	.09
	Female	611(63.12)	357(36.88)		
Grade	1	507(74.78)	171(25.22)	52.30	.000
	2	364(62.98)	214(37.02)		
	3	333(55.69)	265(44.31)		

음주 지식

<Table 3> Alcohol knowledge - correct percentage

	Correct %
1. Alcohol is a stimulant(F*)	42.9
2. Food will keep you from becoming intoxicated(F)	36.9
3. Drinking beer is safer than drinking wine or hard liquor such as vodka or whiskey(F)	39.5
4. Alcohol-related car crashes are all caused by drunk drivers(F)	29.1
5. Alcoholism is a disease(T**)	81.8
6. It is good idea to drink alcohol to prevent heart disease(F)	75.9
7. Drinking a large amount of alcohol occasionally is less harmful than drinking a smaller amount every day(F)	78.5
8.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affect only the abuser(F)	73.8
9. Alcohol or alcoholism will never be my problem(F)	67.6
10. Drinking alcohol makes you feel more confident(F)	64.9
Total correct percent mean	59.1

no response coded as incorrect answer

* F=false ** T=true

음주 지식은 해당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항목별 1점으로 10개 문항에 대해 총합한 척도로 범위 0~10점 내에서 평균 6.17점으로 나타내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한 정답률은 59.1%로 중등도를 상회하는 지식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은 병이다’ 문항에서 81.89%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반면 ‘음주 관련 자동차사고는 모두 음주자의 책임이다’에는 29.1%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Table 3>.

<Table 4>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음주 지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 음주 지식 정도에서는 1학년이 6.05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1학년과 3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10,

<Table 4> Mean comparison of alcohol knowledge by gender, grade, and drinking experience

		Mean ± SD	t or F	p
Gender	Male(n=886)	5.88 ± 2.41	-.54	.588
	Female(n=968)	5.94 ± 2.06		
Grade	1(n=678)	6.05 ± 2.29a	3.10*	.045
	2(n=578)	5.92 ± 2.13		
	3(n=598)	5.74 ± 2.26b		
Drinking experience	No(n=1,204)	6.01 ± 2.29	2.73	.007
	Yes(n=650)	5.72 ± 2.11		

Scheffe test: a<b (p < .05)

<Table 6> Mean comparison of alcohol expectancy by gender and grade

	Gender		t(p)	Grade			F(p)
	Male Mean ± SD	Female Mean ± SD		1 Mean ± SD	2 Mean ± SD	3 Mean ± SD	
Alcohol expectancy	13.6 ± 8.80	14.8 ± 8.15	-2.29 (.022)	13.8 ± 8.18a	14.3 ± 8.63ab	15.0 ± 8.63b	3.35 (.035)
Positive alcohol expectancy	6.86 ± 5.36	7.48 ± 5.12	-2.54 (.011)	6.57 ± 5.06a	7.14 ± 5.32a	7.91 ± 5.29b	10.52 (.000)
Negative alcohol expectancy	6.99 ± 4.41	7.28 ± 4.16	-1.43 (.156)	7.18 ± 4.18	7.18 ± 4.40	7.06 ± 4.30	0.14 (.868)

Scheffe test: a<b (p < .05)

p=.045).

음주 경험 유무에 따른 음주에 관한 지식을 살펴보면, 음주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의 평균 음주 지식은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다 높은 지식정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t=2.73, p=.007).

음주기대

대상자의 음주기대에 대한 정도는 0점에서 35점 범위 내에서 평균 14.32(±8.48)로 다소 낮은 음주 결과에 대한 기대를 보였으며, 긍정적 기대 0에서 20점 범위에서 평균 7.18(±5.24)과 부정적 기대 0에서 15점 범위에서 7.14(±4.08)로 나타났다. 긍정적 기대는 낮은 반면 부정적 기대는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Table 5>.

<Table 5> Alcohol expectancy

	Range	Mean ± SD
Alcohol expectancy	0~35	14.32 ± 8.48
Positive alcohol expectancy	0~20	7.18 ± 5.24
Negative alcohol expectancy	0~15	7.14 ± 4.28

missing data was substituted mean score

성별 및 학년별 음주 기대의 평균 차이는 <Table 6>과 같다. 성차에 따른 음주 기대 분석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와 긍정적, 부정적 기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 음주 기대($t=-2.29, p=.022$), 긍정적 기대($t=-2.54, p=.011$)에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음주기대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 음주 기대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게 나타났으며($F=3.35, p=.035$), 1학년과 3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음주기대도 학년간의 차이를 보였으며($F=10.52, p=.000$),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 경험 유무에 따른 음주 기대를 살펴보면<Table 7>,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기대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32, p=.020$),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유의하게 높은 긍정적 음주기대를($t=-8.54, p=.000$), 부정적 음주기대는 음주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5.97, p=.000$). 긍정적 기대 영역(긴장해소, 사회성, 즐거움)에서는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높은 기대 수준을, 부정적 기대 영역(공격성, 부주의, 인지 및 신체장애)에서는 음주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높게 나타났다.

음주 기대와 음주 지식간의 상관관계

<Table 8>에서 보듯이, 음주 기대와 음주 지식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r=-.40, p=.000$)를 나타냈다 즉, 음주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 기대는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 지식은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기대($r=-.29, p=.000$)보다는 긍정적 기대($r=-.42, p=.000$)와 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기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음주 기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Table 9>, 전반적인 음주 기대는 성별과 음주 지식 정도가 유의미한 예측 인자로서 17%의 변량으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긍정적 음주 기대는 음주 경험, 음주 지식, 성별, 학년에 의해 21%의 설명력을, 부정적 기대는 음주 경험과 음주지식에 의해 11%의 예측과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주 행위 유발 요인 중 가장 예측력이 높은 음주 기대에 대해 탐색하고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음주기대와 관련하여 음주경험과 음주 지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 보고

<Table 7> Mean comparison of alcohol expectancy by drinking experience(Yes/No)

	No	Yes	t	p
	Mean ± SD	Mean ± SD		
Alcohol expectancy	13.99 ± 8.62	14.94 ± 8.18	-2.32	.020
Positive alcohol expectancy	6.43 ± 5.03	8.57 ± 5.28	-8.54	.000
Negative alcohol expectancy	7.56 ± 4.45	6.37 ± 3.84	5.97	.000

<Table 8> Bivariate correlation of alcohol knowledge and alcohol expectancy

	Alcohol knowledge	Alcohol expectancy	Positive alcohol expectancy
Alcohol expectancy	-.40(.000)		
Positive alcohol expectancy	-.42(.000)	.91(.000)	
Negative alcohol expectancy	-.29(.000)	.86(.000)	.58(.000)

<Table 9> Prediction of alcohol expectancy (positive and negative) by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	Independent Var	R ²	β	t or F	p
Alcohol expectancy		0.17		183.43	.000
	Gender		0.99	2.75	.006
	Alcohol knowledge		-1.53	-18.99	.000
Positive alcohol expectancy		0.21		121.06	.000
	Drinking experience		1.75	57.16	.000
	Gender		0.57	6.78	.009
	Grade		0.33	6.13	.013
	Alcohol knowledge		-0.95	377.86	.000
Negative alcohol expectancy		0.11		108.81	.000
	Drinking experience		-1.35	-6.81	.000
	Alcohol knowledge		-0.57	-13.48	.000

식 설문지법을 이용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음주 기대는 Bandura의 사회 인지 이론을 토대로 할 때, 음주 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이는 개인의 선행 경험, 지식,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사회적 수용에 의해 결정된다 (Burke & Stephens, 1999). 다시 말해, 음주 기대는 최초의 음주 경험, 음주에 대한 지식, 음주 행위를 유발하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음주 기대 및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인 전체 중학생 중 약 35%가 어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한 음주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 전국 규모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나타난 음주 경험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 경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보고되고 있어, 이는 음주 시작 연령이 13세-14세에 가장 많이 보고 된 국내외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음주 경험 및 음주 시작 연령은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평가된다 (Jegal et al., 2004; Windle, 2003).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1/3 정도이며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 경험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는 결과로써 음주 시작 연령이 13세 이후 즉, 중학생 시기에 주로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다. 음주 기대와 음주 시작 및 음주 지속의 연속적이고 회환적인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생 대상의 음주 기대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와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정도를 나타냈으며, 음주 기대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음주 경험 유무,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 기대는 높고, 부정적 기대는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들이 가지는 음주 기대와 그들의 음주 경험 유무 간의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음주 기대에서 부정적 기대 수준이 긍정적 기대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들이 모두 중학생이며, 음주 실태 조사 결과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는 음주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대상자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긍정적 기대에서 여학생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점도 시사점이 있다. 이는 중학교에서의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성인기 음주 문제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발달적 특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음주 기대

중 긍정적 기대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에 있어서 술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음주 경험을 더 유발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음주 기대 중 긍정적 기대는 음주 행위의 시작과 지속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영역인데 반해, 부정적 기대는 음주 경험의 시작 이후 음주 행위를 단절시키거나 혹은 조절하는데 작용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Cameron et al., 2003; John, Corbin, & Fromme, 2001). 이와 관련하여 알코올 중독자와 중증 음주자는 그렇지 않은 음주자에 비해 긍정적 기대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Holyfield, Ducharme, & Martin, 1995).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 둘 다 음주 행위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Cameron et al., 2003). Russell, Cooper, Frone과 Peirce(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 행위에 대한 동기로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술을 마시게 되는 부정적 기대가 청소년의 음주 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이기 때문에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긍정적 기대가 향후 음주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긍정적 기대가 높다는 것은 청소년기의 음주 행위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음주 기대와 음주 행위 간의 상호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초기 청소년의 음주 기대는 의도적인 행위인 음주 행위 시작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음주 기대는 이후 음주 행위가 지속 혹은 단절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Aas 등(1998)의 연구 결과처럼, 음주 기대와 음주 행위는 순환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 기대는 이후의 음주 행위를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음주 기대는 이전의 음주 행위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기대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음주 기대는 발달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동의 연령 및 학년과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as et al., 1998; Wiers et al., 2000). 연령에 따라 음주 기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학년일수록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지므로 그에 따른 대처 전략으로써 음주에 대한 동기 부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Russell et al., 1999).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의 음주 지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술에 관한 지식의 정답률은 문항별 차이는 있으나 전체 문항에서 중간 범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음주에 관한 지식의 정답률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음주에 관한 지식의 차이가 단순히 성

(gender)별 특성에 의한 차이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식의 속성을 감안할 때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학년별 음주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는 고학년의 지식 점수가 저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Sigelman 등(2000)에 의하면, 음주에 관한 지식은 인지 발달 수준에 의존하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음주 관련 지식 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Sigelman 등(2000)은 음주에 대한 지식을 알코올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지식으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음주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지식 측정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음주에 대한 지식은 알코올의 생리적 반응보다는 직접 및 간접 경험 및 음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경험 비율이 높은 고학년에 비해 음주 경험 비율이 낮은 저학년보다 왜곡된 지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에 관한 지식과 음주 기대 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정확한 지식 정도는 음주의 부정적 기대와 긍정적 기대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음주에 대한 부정적 기대보다는 긍정적 기대와의 상관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확한 지식 전달,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은 음주 행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 기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음주 기대에 대한 예측 인자로서 음주 경험과 음주 지식, 성별과 학년별 특성이 긍정적 음주 기대 및 부정적 음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음주 기대는 음주 행위의 전조적 특성을 갖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로 음주에 대한 이전 경험과 올바른 지식 정도에 의해 음주 기대에 대한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으로써 청소년기 발달 특성과 관련된 성차와 학년 및 연령이 음주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음주 경험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발달적 특성에 맞춰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에 대한 기대 정도를 낮춤으로 음주 행동의 시작이나 유지를 예방하는데 주효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음주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음주 예방 프로그램 또는 금주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적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기대와 음주 행위 간 상호 관련성에 대한 개념적 틀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Goldman(2002)에 의하면, 음주 기대는 음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음주 기대가 음주 행위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초기 아동의 음주 기대는 후기 아동 및 청소년기의 음주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음주 경험 행위가 감소될수록 음주 기대 역

시 감소될 수 있으며, 음주 기대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음주로 인한 일련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완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음주 시작 및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 중 성공적인 중재 내용은 주로 술에 대한 지식, 신념 및 가치, 일상생활 기술(life skills), 과의 활동, 기타(또래 상담 및 교육, 부모 참여, 매스 미디어 영향) 등의 범주가 포함된다(Komro & Toomey, 2002). 이 때 신념 및 가치 범주에는 자아 존중감, 자기 인식(self-awareness), 태도, 신념, 가치, 자기 효능감 등이 포함되고, 지식 범주에는 왜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신체, 사회적 기능, 행동에 대한 술의 작용 및 영향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위해선 음주 행위에 대한 중요한 예측 요인인 음주 기대를 조절하여 음주자의 음주 행위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비음주자의 음주 행위의 실천가능성을 통제하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 기대에 대한 조절은 개개인의 음주 기대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개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음주 기대 형성에 있어서 관련 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음주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초기 청소년의 음주 기대 평가와 술에 관한 지식 향상을 통해 음주 기대를 조절 및 통제할 수 음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서울시 소재 일개 구의 중학생들의 음주 경험, 음주 지식, 및 음주 기대를 조사한 결과, 음주 기대는 중간 정도의 기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 수준에서 남녀 학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 경험과 관련하여 음주 기대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음주 지식과의 관련성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음주 기대에서는 여학생이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 모두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 지식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음주 기대와 음주 지식 정도는 발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주 경험 유무에 따른 음주 기대에서는 음주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서 긍정적 기대 관련 하위 영역이 높게 나타나 음주 기대와 음주 경험 즉 음주 행위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 기대와 음주 지식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초기 청소년의 음주 기대 형성과 술에 관한 지식 습득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음주 경험, 음주 지식, 및 음주 기대 간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까지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서 음주 기대 중 긍정적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음주 행위 지속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기대에 대한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로써 병합적 요인에 관련 요인을 검토하지 않은 제한점을 갖는다. 향후 음주 기대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관련 변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음주기대에 대한 모델을 근간으로 음주 행위 예방을 위한 스크리닝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자가 보고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된 연구로 음주 경험을 질문한 항목에서 무응답으로 처리한 응답자를 제외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일개 지역에 국한된 표본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의 음주는 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알코올을 관련 건강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건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음주 지식, 음주 기대, 음주 행위 간의 이론적 개념 틀에 대한 근거적 자료는 물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as, H. N., Leigh, B. C., Anderssen, N., & Jakobsen, R. (1998).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among Norwegian adolescents. *Addiction, 93*(3), 373-384.
- Brener, N. D., Grunbaum, J. A., Kann, L., McManus T., & Ross, J. (2004). Assessing health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the effect of question wording and appeals for honesty. *J Adolesc Health, 35*, 91-100.
- Brown, S. A., Goldman, M. S., Inn, A., & Anderson, L. R.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 Consult Clin Psycho, 48*(4), 419-426.
- Burke, R. S., & Stephens, R. S. (1999). Social anxiety and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A social cognitive theory and analysis. *Clin Psychol Rev, 19*(5), 513-530.
- Cameron, C. A., Stritzke, W. G. K., & Durkin, K. (2003). Alcohol expectancies in late childhood: an ambivalence perspective on transitions toward alcohol use. *J Child Psychol Psychiatry, 44*(5), 687-698.
- Casbon, T. S., Lang, A. R., Curtin, J. J., & Patrick, C. J. (2003). Deleterious effects of alcohol intoxication: Diminished cognitive control and its behavioral consequences. *J Abnorm Psychol, 112*(3), 476-487.
- Donovan, J. E. (2004). Adolescent alcohol initiation: A review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J Adolesc Health, 35*(6), 529.e7-18.
- Ellickson, P., Collins, R., Hambarsoomians, K., & McCaffrey, D. (2005). Does alcohol advertising promote adolescent drinking? Results from a longitudinal assessment. *Addiction, 100*(2), 235-246.
- Feldman, L., Harvey, B., Holowaty, P., & Shortt, L. (1999). Alcohol use beliefs and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J Adolesc Health, 24*(1), 48-58.
- Gillmore, M. R., Wells, E. A., Simpson, E. E., Morrison, D. M., Hoppe, M. J., & Wilsdon, A. (1998). Children's beliefs about drinking. *Am J Drug Alcohol Abuse, 24*(1) 131-151.
- Goldman, M. S. (2002). Expectancy and risk for alcoholism: The unfortunate exploitation of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neurobehavioral adaptation. *Alcoholism, 26*(5), 737-746.
- Holyfield, L., Ducharme, L. J., & Martin, J. K. (1995). Drinking contexts, alcohol beliefs, and patterns of alcohol consumption: evidence for a comprehensive model of problem drinking. *J Drug Issues, 25*, 783-798.
- Jegal, G. J., Heo, Y. H., Kim, S. H., & Lee, S. M. (2004). *Survey on rehabilitation suggestion a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ith drinking behaviors*. National Youth Commission. Publication No.11-1150000-000209-01.
- John, B. T., Corbin, W., & Fromme, K. (2001). A review of expectancy theory and alcohol consumption. *Addiction, 96*(1), 57-72.
- Kim, Y. S., & Yoon, H. M. (2001). Middle school student' alcohol experiences and related factors. *Korea J Soc Welfare, 33*, 91-116.
- Komro, K. A., & Toomey, T. L. (2002). Strategies to prevent underage drinking. *Alcohol Res Health, 26*(1), 5-14.
- Martino, S., Collins, R., Ellickson, P., Schell, T., & McCaffrey, D. (2006). Socio-environm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s'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 prospective analysis. *Addiction, 101*(7), 971-983.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 Alcoholism (2003). *NIH Curriculum Supplement Series(Grade 7-8): Understanding Alcohol: Investigations into Biology and Behavior*. NIH Publication No. 04-4991:P.67.
- Neighbors, C., Walker, D. D., & Larimer, M. E. (2003). Expectancies and evaluations of alcohol effect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as a moderator. *J Stud Alcohol, 64*(2), 292-299.
- O'Malley, P. M., Johnson, L. D., & Bachman, J. G. (1998).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Alcohol Health Res World, 22*(2), 85-93.

- Park, C. L., & Grant, C. (2005). Determinants of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alcohol consumption in college students: alcohol use, gender,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ddict behav*, 30(4), 755-765.
- Russell, M., Cooper, M. L., Frone, M. R., & Peirce, R. S.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alcohol, and blood pressure in community-based samples of blacks and non-blacks. *Epi Bulltin*, 40, 299-306.
- Sigelman, C. K., Silk, A., Goldberg, F., Davies, E. P., Dwyer, K. M., Leach, D., & Mack, K. (2000).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beliefs about how alcohol and cocaine affect behavior. *J Appl Dev Psychol*, 20, 597-614.
- Smith, G. T., & Goldman, M. S. (1991, April). *Expectancy theory and children's acquisition of knowledge alcohol*.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s Development Symposium: The Socialization of Drinking in Children, Seattle, WA.
- Swahn, M. H., & Hammig, B. J. (2000). Prevalence of youth access to alcohol, guns, illegal drugs, or cigarettes in the home and association with health risk behaviors. *AEP*, 10, 449-483.
- Vinson, D. C., Borges, G., & Cherpitel, C. J. (2003). The risk of intentional injury with acute and chronic alcohol exposures: A case-control and case crossover study. *J Stud Alcohol*, 64(3), 350-357.
- Warner, L. A., & White, H. R. (2003). Longitudinal effects of age at onset and first drinking situations on problem drinking. *Subst Use Misuse*, 38(14), 1938-2016.
- Warren, C. W., Kann, L., Small, M. L., Santelli, J. S., Collins, J. L., & Kolbe, L. J. (1997). Age of initiating selec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 Adolesc Health*, 21(4), 225-231.
- Wiers, R. W., Sergeant, J. A., & Gunning, W. B. (2000). The assessment of alcohol expectancies in school children: measurement or modification?. *Addiction*, 95(5), 737-746.
- Windle, M. (2003).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lcohol Health Res World*, 27(2), 79-85.

Alcohol Experience, Alcohol Knowledge, and Alcohol Expectancy in Early Adolescents

Tak, Young-Ran¹⁾ · Yun, E-hwa²⁾ · An, Ji-Yeon³⁾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2) Public Health Researcher,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evalence of alcohol experiences and to identify the expectancy on the effects of alcohol and alcohol knowledge in early adolescents. **Method:** The cross-sectional survey of 1854 students from seven middle schools in one district of Seoul was conducted by convenience sampling. Alcohol experience and early onset of alcohol use were measured by the Youth Risk Behavior Survey. Alcohol expectancy was measured by an Alcohol Effects Questionnaire. **Result:** Over sixty five percent of adolescents reported that they had previous drinking experiences. The participants with no alcohol drinking experience had a lower level of alcohol knowledge than those with experience($t=2.73$, $p=.007$). In expectancy on effects of alcohol, girls had a more positive alcohol expectation than boys($t=-2.54$, $p=.011$). Alcohol knowledg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lcohol expectancy($r=-.40$, $p=.000$). In regression of alcohol expectancy, gender and alcohol knowledg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explaining 17%. **Conclusion:** The results support that alcohol expectancy is an important link with early drinking experiences and alcohol knowledge,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gender differences. Therefore, an alcohol prevention program in early adolescence is needed and should be focused on multidimensionality of the alcohol expectancy with developmental and psychosocial factors for early adolescents.

Key words : Alcohol experience, Alcohol knowledge, Alcohol expectancy, Early adolesc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Tak, Young-Ra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17 Hangdang-dong, Seoungdong-gu, Seoul, Korea

Tel: 82-2-2220-0709 Fax: 82-2-2295-2074 E-mail: yrtak@hanyang.ac.kr